

따뜻한 동행 · 행복한 가정

지난해 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현장중심의 나눔복지를 실천해 온 남원시는 2023년을 맞아 여성,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영유아 등 다양한 대상들을 위해 양질의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할 사업과 관련 ▲여성다문화 ▲아동청소년 ▲보육 ▲드림스타트 ▲2023년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사업으로 나눠 살펴본다.

▲여성다문화 분야

남원시는 오는 7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을 위해 5대 조성목표를 설정하고 세부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수립 시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을 배려하는 돌봄과 안전 정책 이행으로 여성과 가족이 행복을 누리는 도시를 말하며, 여성가족부가 5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지난 2014년 지정과 2019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은 바 있으며, 올해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자녀양육비 지원 등 약 16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6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남원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45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독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5%로 확대한다. 청소년(한부모) 상황을 반영한 자립촉진수당 지급요건 완화 등 조직활동 지원 가족센터를 통한 양육 교육 취업 지원 등 맞춤형사례관리를 지역지원과 연계해 강화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입국초기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심리정서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글로벌마을화당, 고향나들이사업, 직업훈련 점검고시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방문교육서비스, 이중언어 환경 조성, 심리정서 지원, 언어발달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복지 증진 및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에 28억을 편성, 출퇴근 시간대 등 돌봄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5개소에서 자녀돌봄 품앗이 등을 운영해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 돌봄의 사회화가 실현될 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 아동센터 복교교사 파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양질의 사업 추진

올 신규사업으로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확대 지원 등

있도록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분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중학생 대상으로 다문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효(孝)를 테마로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잠재력 있는 소질 개발과 청소년들 마음에 효(孝)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는 효행 실천의 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점검고시반을 운영해 2년 연속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올해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및 지역정착을 위한 점검고시 교재지원, 학습 멘토링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학대피해·위기의심 아동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지원을 위해 아동학대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가 강화할 예정이다.

아이집인 콜 112, 아동학대 신고 626-1391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초기 대응 및 올바른 신고 문화가 정착돼 관내 학대피해아동이 방지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아동센터 23개소에 전일제 아동복지교사 1명씩을 전담 배치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성장의 배움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2023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 귀가차량 운전자 지원사업을 통해 방과후 돌봄 아동에게 귀가 시 안전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돌봄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보육 분야

포괄적 육아 지원 전문가인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올해 12월 개관을 목표로 조산동에 건립 중이다. 센터는 보육 관련 정보 및 영유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중심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컨설팅 제공으로 보육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해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기능을 할 계획이다.

남원만의 보육시설인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가 개관 1년을 맞이하며 남원시 부모와 영유아들에게 맞춤형 양육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양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운영 뿐 아니라 장난감 도서관, 놀이체험실, 시간제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일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콘텐츠 보완으로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남원시 랜드마크 자리매김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분야



취약계층 85세대 143명의 이동을 가정 방문하며 아이들이 꿈을 향해 걸음을 뚝 수 있도록 꾸준한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분야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모 양육 코칭 가족여행, 정서발달 지원, 학습지도 등 가족애(愛) 증진과 아동의 역량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남원시의 올해 여성가족 복지 신규사업

먼저, 주거 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의 범죄예방 및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CCTV, 안심장비 지원으로 안전한 남원시 구현 및 안전 체감도를 향상할 예정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중언어 사용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화 학습을 진행하고, 청소년기 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진로지도 운영을 확대한다. 초등학교 취학 전·후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읽기·쓰기·셈하기와 같은 기초학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생률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의 0세반(0~1세 혼합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급해온 0세

반 운영비(7,000만원)를 2023년에는 시비로 확보해(7,200만원) 반별 월 10만원씩 60개반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보육료 외 부모들이 납부하는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3월부터 지원하는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만3~5세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차량 운영비를 1인당 월 10만원 지원해 부모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됨에 따라 귀가차량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총 6개소 각 1,000만원 지원으로 교통안전, 실종·유괴 예방 방지, 재난대피 등 효과적인 어린이 안전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아수당이 2023년에 부모급여로 확대돼 월 최대 70만원까지 연령별로 차등 지급된다. 0~11개월 만 0세 영아 부모에게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비우체 외 차액분 18만6,000원을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12~23개월 만 1세 영아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매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부모급여의 확대 지원으로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돌봄이 필요한 만 6세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시간연장 운영으로 더욱 양육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차미와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다하며 동시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 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